



「한국남동발전」 사옥 조감도

목 차

■ 건설관련 소식 1

- 건설업 상생 발전과 중소 건설사 경쟁력 확보 주력
- 춘계(春季) 도로정비로 안전·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재해만전! 방재업무 역량을 키우다
- 봄철 하천제방정비 치수·이수 만전
- 경남도! 「도시재생 선도지역」지정을 위한 역량 결집
- 노후·불량 주택개량자금 처리용자 지원
- 경남도, 건축행정 민원처리 만족도 큰 폭 상승
- 한국남동발전(주), '경남 진주혁신도시 시대'개막
-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기공식 행사 개최
- 경남도, 장승포항 새 옷 입힌다
- 경남도,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 경남도, 올해 어항개발사업 속도낸다
-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창원시 동부스포츠센터 '건립사업 3월 중 착공'
- 하동군, 국토부 평가결과 '최고 등급' 인센티브로 5월말 공공부분 마무리
- 고성천,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고향의 강으로 재탄생
- 의령군, 2014년 소규모사업 상반기 완료

■ 지식정보 14

- 경남도, 재정건전화 성과를 바탕으로 채무감축 목표시기 1년 단축
- 경남도, 나노융합 특화산단 구체화 논의 나서
- 홍준표 도지사, 항공 특화산단 발전방안 본격 논의
- 경남도, 거제를 해양플랜트 생산 메카로!
- 하천,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다!
- 올해 도로관리 화두는 '안전', 도로관리 예산의 76% 투입
- 그린리모델링! 공공건축물이 앞장선다!

■ 해외건설이야기 22

■ 입법예고 및 법령해석 26

■ 신기술 정보 33

■ 건설기술심의 현황 34

■ 계약심사 현황 35

■ 기술인 나눔 정보 35

건설업 상생 발전과 중소 건설사 경쟁력 확보 주력

▶ 2014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원년

경남도는 2014년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원년으로 정하고, 정부의 SOC사업 투자 재검토 및 사업 축소 등 건설산업 시장 환경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며 경남 미래 50년을 이끌 지역 건설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목표를 「건설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산업 육성」으로 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지역 건설산업 발전 협력 및 지원, 지역 건설산업 보호시책, 지역 건설산업 청렴도 향상 대책의 3개 분야로 적극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 건설산업 발전 협력 및 지원 시책으로

- ▶ 우수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추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확대 서한문 발송
- ▶ 건설 유관기관협의회 및 대형 건설사 영남지사장 간담회 개최
- ▶ 대형건설사업장 민·관 합동 세일즈단 방문
- ▶ 건설산업발전 연찬회 개최 및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표창 등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촉진을 통하여 건설산업관련 신규과제 발굴과 제도개선 등으로 변화하는 건설시장 동향과 정책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 건설산업 보호시책의 일환으로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처리센터를 운영하여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

를 설치하여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업 등록업무의 신속·공정한 처리로 민원 불편 최소화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합리적 행정처분 확행 및 건설사업 관계자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별 책임 공무원제 도입, 청렴공사 이행 서약서 징구 등 청렴도 향상 대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14년 특수시책으로 건설업 불황에 따른 소규모 건설업체에 대한 경비 절감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건설업 기업진단 자가 계산시스템 구축”, 국내 수주난 해소 및 해외건설시장 진출 희망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해외건설협회컨설팅 서비스 지원”, 장기 침체되어 있는 지역 건설산업의 다각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용역”등 다양한 시책을 도입, 추진하기로 하였다

경상남도 관계자는“국내 건설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글로벌 경제 위기 탓으로 건설산업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 되겠지만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연구 용역진행과 중소 건설사 해외진출을 모색 하는 등 건설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건설지원담당
(055)211-4614



경남도, 춘계(春季) 도로정비로 안전·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 4월 25일까지 시·군과 공동으로 지방도 등 15,516노선 일제 정비

경상남도는 겨울철 기록적인 한파 및 잦은 강설, 결빙에 따른 제설작업 등으로 더러워졌거나 동결응해 현상으로 기능이 저하된 도로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정비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 수해피해에 대비하여 4. 1일부터 4. 25일까지 2014년도 춘계 도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도내 전 시·군과 공동으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 도로(15,516노선 10,128Km)에 대하여 일제히 실시한다.

주요 정비대상은 해빙기에 따른 시설물 정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에 취약한 급경사지, 비탈면,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 수해피해에 대비한 점검·정비이며, 일반적인 노면 평탄성 확보를 비롯하여 각종 도로시설물의 청결상태, 도로표지 정비 상태, 교량 및 터널 등 주요 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유지, 배수시설, 낙석·산사태위험지구 등에 대하여도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시·군에서 일제 정비한 도로에 대하여 5월 중 도에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재정비 및 현장 시정조치 등을 실시하여 금년 말 우수 시·군 및 유공자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금번 춘계 도로정비를 통하여 경남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지역 이미지를 알리고, 도민과 도로 이용자에게 안전·쾌적하고, 생동감 넘치는 도로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도로과 도로시설담당
(055)211-4674



재해안전! 방재업무 역량을 키우다

▶ 도, 18개 시·군, 읍·면·동 방재업무 실무자 340명 방재워크숍 개최



경남도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3월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창녕에서 도와 시·군 본청, 읍·면·동 방재업무 담당공무원 340명이 참석하여 방재업무 정보공유 및 역량강화를 위한 다짐을 개최했다.

매년 겪어오는 여름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남도와 시·군 본청, 읍·면·동 방재 분야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방재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방재 마인드 전환과 도, 시·군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및 신속한 재해대응 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외 각종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규모와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특히, 경남지역은 여름철 잦은 집중호우가 발생하며 태풍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고, 낙동강 수계, 섬진강 수계의 최하류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태풍 내습 시 상대적으로 피해발생 빈도가 높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년도에는 태풍이 총 26회 발생하였으나, 일본, 중국, 베트남 등으로 상륙하여 경남 도내

에는 태풍 피해가 전혀 없었으며, 그 외 호우 26회, 강풍 5회, 풍랑 3회 등 자연재난 특보가 발령 되었으나 경남도와 일선 시군에서 한발 앞선 사전대비와 체계화된 대응체계 가동 등 방재업무에 철저를 기해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 제로화 원년을 기록하게 되었다고 경남도 관계자는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방재분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상남도 재해대책본부장이 “방재의 중요성과 안전 경남 / 경남미래 50년을 내다보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할 계획이며, 홍성대 창원기상대장이 “올해 기상 전망 및 여름철 방재 기상대책”, (사)우리하천학회 민일규 박사가 “자연재해 발생원인 및 사례분석”과 소방방재청 전상률 사무관의 “2014 방재 정책 주요시책과 방향” 등 방재 특별 강의를 통하여 시군 읍면동의 실무자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결되는 방재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종 방재행정 혁신업무 추진과 각종 법령 및 제도에 대해 참석자들이 방재관련 연구과제를 놓고 분임별 토의와 발표도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남도 송병권 치수방재과장은 금년에는 종전과 달리 24시간 업무 공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기상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협업기관의 역할분담과 편성반을 상시 운영하는 등 신속한 상황 대응태세를 확립하여 올 여름철에도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치수방재과 복구지원팀당
(055)211-4193



봄철 하천제방정비 치수·이수 만전

▶ 우수기 이전 주요하천 683개소 4,201.36km 점검·정비

경남도는 해빙기를 맞아 기능이 저하되었거나 파손, 훼손된 국가·지방하천 제방 및 하천 부속물을 일제 점검·정비하여 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우수기 이전에 하천제방 정비를 중점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다.

경남 도내에는 국가하천 10개소 440.56km, 지방하천 673개소 3,760.81km 등 총 683개소 4,201.36km의 주요 하천이 있으며,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하도준설 9,167백만원, 하천유지관리 2,600백만원, 지방하천 표지판정비 400백만원 등 총 12,167백만원의 예산을 2014년도에 확보하였다.

우수기 이전 중점 정비 사항으로는 제방 둑마루 및 턱에 요철이 발생하면 물이 고이게 되어 제체가 약화될 뿐만 아니라 비탈면 붕괴 원인이 되는 요철 보수, 두더쥐, 들쥐, 뉴트리아 등의 야생동물에 의한 구멍은 제체의 안전은 물론 누수, 파괴의 원인이 되므로 세심한 조사 후 조치, 제방에는 잡초 및 식생의 뿌리가 번성하여 제체 내에 균열, 함몰, 활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초 및 뿌리뽑기 실시 등의 축제정비와 하천공작물, 기초공, 밑다짐공 등 호안을 정비할 계획이며, 특히 하천구역내 퇴적토, 수목은 수생식물 및 생물의 서식환경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하천제방 정비와 더불어 경관이 양호한 하천부지에 수변 문화공간 등을 조성하여 도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계획이며, 하천과 함께

하는 걷기대회, 하천정화활동 및 하천시설물 합동점검 등 행사개최로 지역민들의 하천사랑 의식 고취에도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경남도는 우수기 하천기능이 저하된 주요 하천의 독마루 요철정비, 호안정비, 풀베기 등을 실시하여 제방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상·하반기 평가를 실시하여 하천본래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기관 및 공무원에게는 도지사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 하는 등 시책으로 전 시군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자료 : 도 치수방재과 하천관리팀담
(055)211-3943



경남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역량 결집

▶ 지역여건을 잘 반영한 선도지역 건의로 “경남미래 50년” 기반 마련

경남도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의 선도사업으로 추진예정인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해 창원시 구마산 원도심 지역 등 근린재생형 4개소 총사업비 700억원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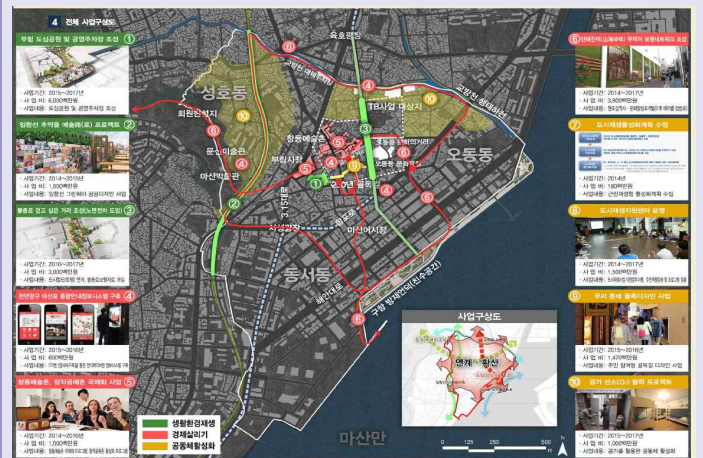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지난 해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시재생을 긴급하게 효과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 중에서 근린재생형과 도시경제기반형의 2가지 유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다.

근린재생형 쇠퇴한 구도심 및 중심시가지 등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과 생활여건이 열악한 노후·불량주거지역에 일반사업은 총사업

비 200억원, 소규모로 추진할 경우 총 100억원을 4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며,

도시경제기반형은 경제회복효과가 큰 핵심시설 등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고, 복합적 개발사업 등을 통해 도시에 새로운 기능 부여 및 고용기반 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500억원을 4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도의 세부 신청내용을 보면, 총사업비 200억원을 지원하는 근린재생 일반형으로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가, 총사업비 100억원을 지원하는 근린재생 소규모형으로 하동군이 신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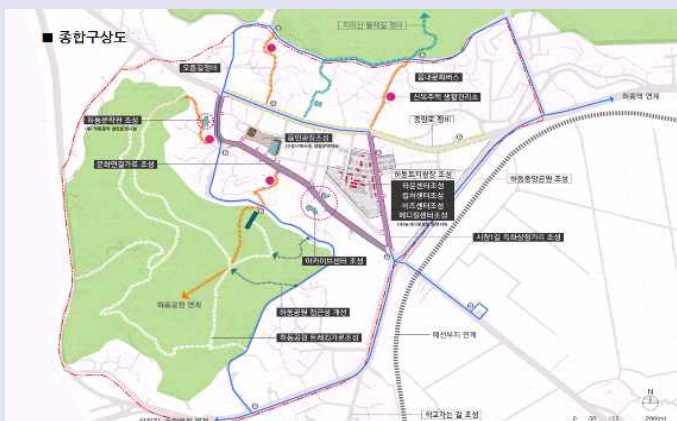
<창원시(천년항구 마산포 르네상스)>



<김해시(김해읍성 복원 및 가락로 정비)>



<양산시(원도심 활성화사업)>



<하동군(하동읍 중심시가지 기능회복을 통한 재생)>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1월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안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및 공문으로 전국 지자체에 추진일정을 통보하였으며, 3월14일까지 신청을 받아 관련부처, 학회,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4월말까지 최종 지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선도지역에 지정이 되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 및 관리에 이르는 전과정의 모니터링과 성과 평가를 통해 주변지역과 후속 사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에서는 4개 시·군과 전방위적 협력을 통하여 전 사업이 선도 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며, 이를 계

기로 경남도의 미래 50년 성장동력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 : 도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055)211-4326



노후·불량 주택개량자금 저리융자 지원

▶ 노후·불량주택 대상, 장기(최장 20년) 저리(연2~2.7%)

경남도는 도시의 노후 되고 불량한 주택에 대해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개량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준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2014년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에 따른 도시지역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개량 및 신축 자금으로 장기(최장 20년) 저리(2~2.7%)의 국민주택기금을 융자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 토지 또는 노후·불량 주택 소유자, 대학교 주변 및 도시 지역의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이다.

대출 조건은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대출 한도는 단독주택의 경우 호당 6000만원, 다가구주택은 1억8000만원(가구당 2250만원), 다세대주택은 호당 3000만원이며, 개량의 경우는 대출 한도의 절반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자격 및 가능금액을 먼저 안내 받은 후, 해당 시·군(주택관련 부서)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주택 개량자금 융자 대상자 추천서를 받아 우리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 자료 : 도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055)211-4414

경남도, 건축행정 민원처리 만족도 큰 폭 상승

- ▶ 국토부 주관 평가 전국 시도 중 ‘건축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
- ▶ 민원 감축률과 다양한 건축행정 편람발간 우수사례 꼽혀

국토부는 3월 19일 ‘2013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결과를 전 시도에 통보했다.

여기에 전국 34개(광역+기초) 지자체에 접수된 건축 민원수가 평균 4.4% 감소한 반면 경남도는 53%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경남도의 건축행정에 대한 민원처리 만족도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국토부 주관으로 전 시도를 대상으로 지난 1월에 전년도 처리한 민원처리 실태 만족도를 평가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민원감축 등 지자체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것이다.

그동안 도에서는 각종 민원발생에 따른 건축사업 지연과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고 도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민원감축 방안을 마련 추진하였다.

또, 도는 건축 관련 다양한 업무 매뉴얼을 제작·보급하여 도민들이 쉽게 건축행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축담당 공무원의 민원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숍, 교육 등을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였다.

이외에도 2011년부터 매년 경남건축문화제 개최를 통해 모범 건축물을 전시하고 다양한 건축 체험 행사를 마련하여 도민들이 쉽게 건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국토부 평가 결과에서 경남도의 우수사례로 민원 감축률과 다양한 건축행정 편람 발간 등을 들었다

경남도 조현명 도시교통국장은 “투명한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나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시·군별로 특성된 건축행정을 추진하여 도민들이 경제활동과 주거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자료 : 도 건축과 친환경건축담당
(055)211-4422

한국남동발전(주), '경남 진주혁신도시 시대' 개막

- ▶ 27일 한국남동발전(주) 이전 기념식 개최

창립 13주년을 앞두고 있는 한국남동발전(주)은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윤한홍 경상남도행정부지사, 이창희 진주시장, 김재경 지역 국회의원 등 주요내빈과 한국남동발전(주) 임직원 및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신청사 이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번에 개청한 신사옥은 부지 3만 2527㎡에 연면적 2만 2825㎡(지하 1층, 지상 17층) 규모로 사업비 708억 원을 투입하여 2011년 11월 착공, 올해 1월에 준공하였다.



그리고 지난 14일부터 이전을 시작해 23일에 직원 290여 명 등 이전을 완료했으며, 이는 경남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중앙관세분석소(2013년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남동발전(주)은 삼천포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6개 산업발전 단지에서 국내 전력수요의 12%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국가산업발전의 원동력이자 태양광, 바이오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중추적인 기관으로 우리 지역에 이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역의 청소년 및 학생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선망의 직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그밖에도 지역기업 및 상권과 연계된 생산유발 효과 등으로 우리 도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경남진주혁신도시는 올해 한국남동발전의 이전을 계기로 국방기술품질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1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되며, 2015년 까지 이전 완료되면 교육, 문화, 주거 등 정주환경과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3만 1천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 2조 7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등 파급효과가 발생해 서부경남의 성장동력 거점으로 거듭나게 되는 동시에 당당한 경남시대를 선도하는 명품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경남도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빠른 지역 정착을 위해 치안, 교육, 의료 등 정주여건에 불편이 없도록 35개 이전과제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정서적 두려움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에 동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윤한홍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한국남동발전이 서부경남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하며, 아울러 항공산단 등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면서 서부경남 발전을 위해 도차원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자료 : 도 공공기관이전단 혁신도시개발담당 (055)211-6474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기공식 행사 개최

▶ 3월 27일 11시 김해 골든루트 일반산업단지 공단(주촌면 농소리)

도내에서 가장 많은 중소기업체가 모여 있는 김해시에서 오는 3월 27일 11시에 주촌면 김해 골든루트 일반산업단지 신축 현장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 김맹곤 김해시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장, 일반시민, 산업단지 근로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는 교육, 복지, 금융, 세무 등 협력기관 집중화로 기업활동 효율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원스톱 기업지원 시설로서 국비 40억원, 도비 150억원, 시비 123

억원 등 총 313억원을 들여 부지 12,767㎡, 건축연면적 11,774㎡(지하 1층, 지상5층) 규모로 2015년 9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주요 시설물로는 전시장, 행정지원시설, 금융지원 시설, 기업인 및 근로자 복지시설, 수출상담장, 회의실 등을 갖추게 된다.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가 완공되면 김해지역 7천여 기업인과 8만7천여명의 근로자들에게 기술개발, 경영혁신, 정보 제공은 물론 전시·교육·상담 등 기업 활동 편의를 높여 줄 것이며, 기업지원시설 집적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우리 지역경제 활력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자료 : 도 기업지원단 기업지원담당 (055)211-2953



경남도, 장승포항 새 옷 입힌다

▶ 올해 36억 원 투입 친수공간으로 조성, 2016년 7월 완공 예정

경남도는 장승포항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지난해 사업비 20억 원에 이어 올해 32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총사업비 7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기존 장승포항을 친수관광항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것으로써, 기존 여객선부두와 주차장 주변부지는 친수공간으로 재조성된다.

관공선 부두와 여객터미널을 연결하는 수변산책로 중심으로는 카멜리아테크, 꽃봉우리광장, 놀이마당, 문화가로, 꽃잎프라자, 동백광장 등이 들어서 다양한 문화체험 및 휴식공간이 어우러진 다목적 해양친수공간으로 조성된다.



거제시의 시화인 ‘동백꽃의 사계’를 모티브로 하여 조성되는 장승포항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계절에 따라 다양한 경관을 연출할 것으로 보여,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며, 2016년 7월 완료를 목표로 현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경남도는 전했다.

그간 장승포항은 부산~거제 간 해상여객 수송기능을 전담했던 항으로, 그 기능이 거가대교 개통의 영향으로 항로가 폐쇄되고 해운물류기능도 위축돼 새로운 기능전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민은 물론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문화·휴식 공간이 될 것”이라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금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항만물류과 항만개발담당 (055)211-3972

경남도,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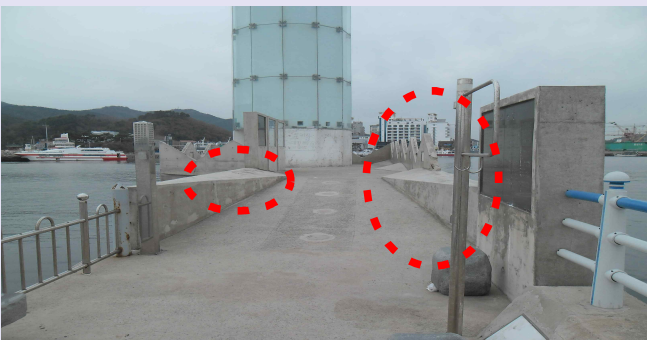
▶ 2014년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도내 항만시설물 안전도 '적합'

경상남도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진해항을 비롯한 6개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 대상항만 : 진해항, 삼천포항, 통영항,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0일까지(23일간) 실시한 이번 안전점검은 해빙기에 취약해지기 쉬운 항만시설물 지반침하 등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시정조치 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과 시설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건설 중인 통영항 어선대체부두 축조공사 현장과 이미 건설돼 운영 중인 삼천포항 한전부두 등 접안시설 32개소, 방파제 및 호안 33개소, 함선 19기 등 지방관리무역항 내 항만시설물 86곳이었다.



점검결과 전반적으로 건설공사현장과 항만시설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진해 속천 방파제와 물양장, 통영도남항 방파제, 옥포 조라항 방파제, 통영항 여객선터미널 함선 3척과 도교 4개소는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금년도 항만시설 유지보수예산(4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보강 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항만건설현장과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항만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방파제에 설치된 안전난간과 인명구조용 장비를 이용객들의 부주의로 손상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며, 항만시설물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 자료 : 도 항만물류과 항만개발담당
(055)211-3974

경남도, 올해 어항개발사업 속도낸다

▶ 79개항 238억 원 투입, 3월말 90%이상 착공

경남도는 올해 지방어항개발 정비사업에 238억 원을 투입하고 3월말까지 90%이상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6월말까지 60%이상 집행을 목표로 추진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추진되는 어항개발 사업은 '지방어항개발사업'에 창원 시락항, 남해 광천항 등 16개항, '정주어항 시설확충'에 창원 우도항, 통영 삼화항 등 52개항, '복합 부잔교 설치'에 하동 술상항 등 9개항, '아름다운 어항개발'에 통영견유항, '다기능 어항개발'에 거제 쌍근항으로 총 79개항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비는 도 지정어항인 '지방어항 개발사업'에는 140억 원, 시·군 지정 어항인 '정주어항 시설확충'에 81억 원, '복합 부잔교 설치'에 5억 원, '아름다운 어항개발'에 4억 원, '다가능 어항개발'에 6억 원, 지방어항 실시 설계비 2억 원으로 총 238억 원이다.

이 중 '아름다운 어항개발'과 '다가능 어항개발' 사업은 광역자치단체 중 경남도가 최초로 추진하는 특수시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어항 인프라 구축과 함께 해양관광 및 레저시설, 소공원 시설 등을 추가하는 사업으로 어항의 환경개선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7개 어촌정주어항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어항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치고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에 있다.

승격된 지방어항에 대하여는 올해 어항개발 계획 수립 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복합적 기능을 갖춘 미래형 다가능어항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올해 추진되는 어항개발 사업은 어선의 안전계류와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정주환경 개선과 어업인 소득증대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어항 기반시설 조기 조성 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해양수산과 어촌개발담당
(055)211-3823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3월 24일부터 5월 16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전체 대상

최근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가운데 다가올 봄철 황사와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건강 문제 등 도민의 생활불편이 예상된다.

이에 경남도는 3월 24일부터 5월 16일까지 8주 동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2700여 개소의 공사장과 900여 개소의 시멘트제조업, 비금속물질 채취, 비료 및 사료제조업, 저탄시설 등 법령상 관리대상인 10개 업종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여부, 방진벽, 방진망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운영 여부, 세륜, 세차시설 운영현황, 작업장 밀폐시설 및 먼지제거 시설 등을 점검하며, 토사 운송차량에 대하여는 세륜·측면 살수와 적재함 덮개설치 적정여부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신고의무 불이행, 세륜·살수시설 미비 등으로 적발된 업체에는 과태료 및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방진벽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사업장은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벌금형 이상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조달청 등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항목 감점을 받게 된다.

경남도는 지난해 2344개소를 점검하여 308개 사업장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사용중지,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특별점검기간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업장 스스로 저감대책에 적극 동참을 유도하고, 도민들에게는 위반사업장을 발견할 경우 도 또는 해당 시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전국 비산먼지 발생량은 58톤으로 이는 총먼지 발생량의 71%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장 스스로가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저감시설 마련과 이행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료 : 도 환경정책과 대기보전담당 (055)211-4145



‘창원시 동부스포츠센터’ 건립사업 3월 중 착공

▶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스포츠센터 건립 박차

창원시가 옛 창원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2009년부터 추진해 오던 ‘창원동부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을 3월 중에 착공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창원동부스포츠센터’는 관내 성산구 남양동 37번지 내 연면적 11,500㎡에 실내 빙상장(30m×61m)·수영장·스쿼시장(5면)·건강증진센터·문화센터 등 스포츠시설과 문화공간을 조화롭게 갖춘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동부스포츠센터는 2010년 현상설계 공모와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쳐 ▲도시와 지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풍부한 외부공간 ▲자연채광과 외부 조망이 가능한 수영장 ▲에너지 절약형 시설계획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디지털 체육문화시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계를 확정했다.

창원시 정성철 체육진흥과장은 “총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어 완공이 되면 성산구 주민들의 생활스포츠 및 지역문화 공간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마산합포구 월영동 721번지에 추진 중인 ‘마산종합스포츠센터 건립사업’도 현재 오염 토양정화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 6월 토양정화사업 완료 이후에 본 공사가 착공 될 수 있도록 사업비 60억 원을 이미 확보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자료 : 창원시 체육진흥과 (055)225-3745



하동군, 국토부 평가결과 '최고 등급' 인센티브로 5월말 공공부분 마무리



하동지역 유일의 유인도인 금남면 대도(大島) 도서특화 시범사업이 정부의 인센티브로 5월 말 공공부분 완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20일 하동군에 따르면 대도 도서특화 시범사업은 정부의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반영돼 2007년 8월 공공투자사업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공공 328억원·민간 150억원 등 총 47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도 도서특화사업은 금남면 대도리 대도마을 30만 9422㎡를 지역 특성을 살린 매력 있는 관광·힐링·휴양 섬으로 조성하는 도서개발사업이다.

특화사업은 공공 부문과 민자 부문으로 나눠 추진되고 있는데 공공 부문은 목섬연결교량 92m, 일주도로 3.3km, 상수도 관로매설 7.1km, 오수처리시설 5개소, 물놀이장 3개소, 가로등 128등, 조경 등으로 돼 있다.

민간 부문은 펜션 77동을 비롯해 유스호스텔 1동, 상가시설 5동, 콘도형 유료낚시터, 낚골묘, 풍차전망대 등의 사업으로 구성됐다.

금오산업 등 4개 회사가 시공을 맡고 있는 이들 사업 중 공공 부문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일주도로변의 가로등 설치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마무리됐다.

또 민간 부문도 2012년 8월 식당·레스토랑·노래방 등이 들어있는 풍차전망대를 준공한데 이어 현재 펜션 공사가 한창 진행되는 등 대부분의 공사가 일정에 맞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1·2차로 나눠 지난달 1차분 공사에 들어간 공공 부문의 가로등 설치사업은 이달 중 나머지 2차 사업을 정부의 인센티브 사업비로 시작할 예정이어서 의미를 더한다.

군은 2012년까지 대도 도서특화 시범사업의 공공부분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지난해 전국 88개 도서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부의 지역개발사업 평가에서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S(탁월)'를 받아 2억 1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군은 이번에 받은 인센티브로 오는 5월 말까지 2차분 가로등 63등을 설치키로 해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공공 부문 사업도 완료된다.

군 관계자는 “대도 특화사업의 공공 부문에 이어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민간 부문이 끝나면 섬 자체가 물놀이·휴양·낚시·생태체험이 어우러진 관광·휴양 섬으로 탈바꿈해 지역의 생산·고용 창출은 물론 관광하동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 : 하동군 기획감사실
(055)880-2043

고성군 고성천,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고향의 강으로 재탄생

- ▶ 고성군, '고성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착수
- ▶ 사업비 184억 원 투입 내년 착공 17년 완공
- ▶ 20일, 고성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 개최해 의견 수렴

고성군 고성읍과 고성들녘을 가로 질러 흐르는 고성천이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고향의 강으로 재탄생된다.

고성군은 역사와 추억, 자연이 하나 되는 강 조성으로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고성읍 죽계리부터 무량리까지 5.4km 구간에 걸쳐 '고성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정비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84억 원(국비60%, 지방비40%)이 투입된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 보상을 시작으로 내년에 착공, 2017년 완공할 계획이다.

고성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홍수 등 각종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제방정비로 치수기능을 강화하고 ▲비가 많이 오면 주민의 통행이 불가능한 잠수교를 철거하고 교량을 설치하며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여울형 낙차보를 설치하고 ▲고성천 바이오 스포츠로더와 연계한 산책로 등을 조성하게 된다.

김성태 안전총괄과장은 “하천범람과 제방유실 등 각종 재해를 예방함은 물론 지역주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친수환경을 조성해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20일 오전 10시, 고성읍사무소에서 지역주민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고성천 하천기본계획 및 고향의 강 조성사업 실시설계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 자료 : 고성군 행정과
(055)670-2641

의령군, 2014년 소규모사업 상반기 완료

의령군은 지방재정의 균형집행과 주민숙원 해소 및 사전재해 예방을 위한 소규모사업을 상반기내 조기 완료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군청 및 읍·면 시설직 공무원 18명으로 구성된 소규모사업 2차 합동설계반을 운영한다.

군은 19일부터 4월 11일까지 24일간을 합동설계기간으로 정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될 사업 중 5천만원 이하 소규모 또는 1억원 이하 단순공종사업 95건, 20억3천만원 사업의조기완료를 위해 읍·면별 3개 반으로 나누어합동설계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규모 사업 중 자체설계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4월말까지 설계 및 발주를 완료하고, 6월말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원활한 재정균형 집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합동설계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억제하고 군과 읍·면 시설직 공무원의 기술정보 교환으로 기술능력 향상은 물론 자체 설계를 통해 1억1천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자료 : 의령군 건설도시과
(055)570-2741

경남도, 재정건전화 성과를 바탕으로 채무감축 목표시기 1년 단축

- ▶ 3월말까지 1373억 원 감축으로 채무규모 1조원 이내로
- ▶ 2년간 현재까지 3495억원 채무감축으로 건전재정 기반마련

경남도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추진했던 세출구조조정과 민자사업 재구조화 성과 등을 바탕으로 당초 2017년말까지 계획했던 채무 50% 감축 목표를 1년 앞당겨 2016년말로 조정하고 14년 3월말 채무를 1조원 이내로 줄여서 재정건전화의 기반을 조기에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당초 계획했던 채무 50% 감축 목표를 1년 앞당길 수 있게 된 배경은 2013년도 결산결과 세입면에서 탈루·은닉세원 발굴(132억원)과,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140억 원) 등의 영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거가대로 MRG부담 축소(307억 원 → 191억 원)와 전국 최초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를 통한 예산누수 차단(147억 원), 행사운영비 등 경상경비 절감(46억 원), 행사성 사업 및 불요불급한 사업 등의 세출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670억 원) 등 지난 한 해 동안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건전재정 운용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예년(1500억 원 정도)보다 900억 원이 증가한 2400억 원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초 채무감축 5개년 계획 수립 당시 예측되지 않았던 거가대로 민간투자사업의 재구조화가 지난해 11월 11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4년간 1251억 원의 세출수요가 줄어들게 된 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우선 2014년 예산에 반영된 채무상환액 1598억 원 중 930억 원은 3월까지 기상환 완료하였고, 이후 상환이 도래하는 668억 원은 3월말까지 앞당겨 상환하여 이자 부담 17억 4700만 원을 줄이고, 계획된 지방채 발행액 900억 원 중 1~2월중에 발행한 225억 원을 제외한 미발행액 675억 원은 계획보다 초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채무 조기상환에 따라 2014년 3월말 현재 경남도 채무는 9993억 원으로써 2013년도말 1조 1366억 원에서 1373억 원 감소하였으며, 당초 채무감축에 따른 채무유지 목표액 2014년말 1조 938억 원, 2015년말 9,748억 원이었으나 1년 앞당겨 1조 원 이내로 줄어들게 돼 채무감축 목표액 6608억 원(1조 3488억 원 → 6880억 원)을 당초 2017년말에서 2016년말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홍준표 도지사는 취임 이후 재정점검단을 신설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도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지난해 채무 2171억 원 상환, 거가대로 재구조화, 출자·출연기관 구조개혁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러한 시책들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서울 특별시를 비롯한 인천·광주·강원·충남·전북·경북 등 7개광역시·도에서 우리 도를 직접 방문하여 벤치마킹하였고, 여타 나머지 미방문 시·도에서도 관련 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5일 국토교통부에서는 도 재정점검단장을 초청하여 거가대로 재구조화의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였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도 지방재정 제13호('14. 1. 2월 발행)를 통해 경남도의 재정건전화 추진내용이 소개되는 등 경남발재정건전화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시책 중 “채무감축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재정건전화를 위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국고예산 확보 총력경주” 등 7개 시책은 계속 추진하고,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분담기준 마련, 마창대교 MRG최소화, 신규 세출수요 억제 사전 점검체계 구축” 등 6개 시책을 신규로 추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롤 모델로 확고히 자리매김 시킨다는 복안이다.

■ 자료 : 도 예산담당관실 예산2팀담당 (055)211-2362



경남도, 나노융합 특화산단 구체화 논의 나서

▶ 21일, 홍준표 도지사 나노융합기업 및 연구기관 대표와 간담회 가져



경남도가 밀양 나노융합 특화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나노융합 관련 기업들의 의견

수렴 및 발전방향 논의에 나섰다.

21일 14시 (주)한국카본(밀양시 소재 나노융합기업)회의실에서 홍준표 도지사는 나노융합기업 및 연구기관 대표와 함께 나노융합 특화산단 구체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경남도는 이 자리에서 지난주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발표가 경남의 산업지도를 바꾸고 경남 미래 50년 먹거리 토대를 마련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도의 전략산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준 정부정책에 발맞춰 경남 미래 50년 전략산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 날 참석한 나노기업 대표 및 연구기관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분양가 인하, 나노 연구인력 수급 및 연구개발 자금 지원 등에 대하여 도지사의 관심과 지지를 건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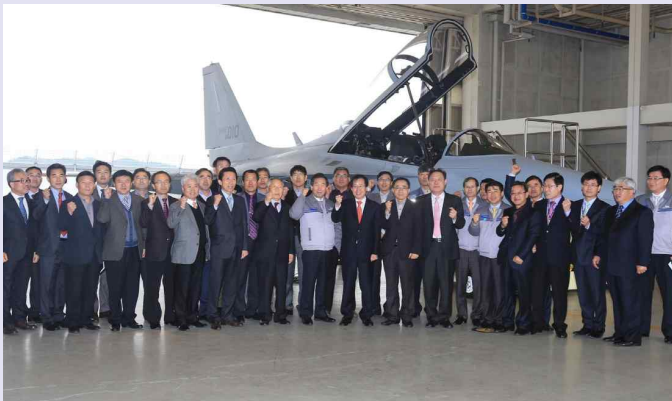
이에 홍준표 도지사는 “건의하고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차질없이 수행하여 기업체와 연구기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세계일류 나노융합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의 나노융합 특화산단은 창원의 기계, 울산의 자동차 및 화학, 대구의 바이오, 구미의 전자, 김해의 의생명, 부산의 부품소재 산업 등 산업간 연계성이 뛰어나 계획대로 조성될 경우 4조 7천억 원의 경제효과와 2만 8천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자료 : 도 성장동력과 나노융합담당 (055)211-2743

홍준표 도지사, 항공 특화산단 발전방안 본격 논의

- ▶ 지난 12일 국토부에서 5개 특화산단 중 사천·진주지역 항공 특화산단 포함
- ▶ 홍준표 도지사, 19일 KAI에서 도내 항공기업 대표자 30여 명과 간담회 개최



지난 12일 국토부에서 전국의 5개 특화산단 중에 하나로 사천·진주지역의 항공산업을 선정하였다.

이에 홍준표 도지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에서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항공기업 대표자 간담회’를 가지고 도내 30여 개 항공기업 대표들과 경남의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항공산업 특화산단 구체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 했다.

이날 항공기업인들은 홍준표 도지사에게 이번 항공산업 특화산단 선정을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향후 항공산단 조성 시 기업부담 해소를 위해 경남도가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과 분양가 인하, 세제 혜택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도는 간담회에서 항공산업은 부품수가 자동차의 10배인 20만 개이며, 핵심기술은 자동

차의 15배인 650만 개로 KAI를 비롯한 항공기업들이 부품 국산화율을 높이면 자동차의 10배 이상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되며, 항공산업의 발전이 곧 광범위한 부품산업과 중소기업 발전을 촉진시키는 산업임을 강조했다.

또한, 항공산업 발전으로 KAI를 비롯한 항공기업의 고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에서 매년 160명 이상 항공인력을 양성하면 바로 채용되고 있어 2020년 생산 160억 불, 5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홍준표 도지사는 “사천·진주지역 항공을 비롯하여 거제의 해양플랜트, 밀양의 나노 특화산단은 경남의 산업지도를 바꾸는 성장축이 될 것이다”라면서 “경남도는 항공기업들과의 상호 협의를 통해 항공산업이 미래 50년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성장동력과 항공산업담당
(055)211-2723

경남도, 거제를 해양플랜트 생산 메카로

- ▶ 28일 홍준표 도지사, 기업대표들과 해양플랜트산업 발전방향 논의



지난 12일 특화산단으로 지정된 3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경남도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28일 오후 3시 홍준표 도지사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경남분원 회의실에서 권민호 거제시장, 원경희 거제상의 회장, 해양플랜트 기업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양플랜트 기업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해양플랜트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에 정부가 지정한 해양플랜트 특화단지에는 옥포, 죽도, 지세포 국가산단에 이어 거제지역에 4번째로 조성되는 대규모 산업단지로서, 경남도와 거제시는 2020년까지 1조 2600여억 원을 투입해 해양플랜트 생산 메카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남도와 거제시는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를 국가산단으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앞서 고질적인 대규모 사업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개발계획을 가지고, 지난 1월에 지자체, 금융권, 실수요 기업이 참여하여 사업시행자 구성 협의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700여 개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부산강서산업단지(주) 및 부산신항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과 협의하여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입주기업 및 입주기업수를 확정할 계획이다.

실수요자 중심개발은 그 동안 국가산업단지 개발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사업비 조달·분양을 전담한 결과, 사업지연·미분양 증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실수요조합과 금융권이 100% 사업비

를 조달하고 LH, 지자체는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개발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정부-LH, 지자체-민간 협업을 통해 LH의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홍준표 도지사는 이 날 간담회에서 “해양플랜트산업의 발전은 거제뿐만 아니라, 경남의 발전, 나아가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 강조하고, “도는 해양플랜트 특화산단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제에 삼성중공업 규모의 새로운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약 2조 원의 경제적 효과, 1만여 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김천~진주~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KTX가 연결되면 진주에서 서울까지 1시간 40분대, 거제에서 서울까지는 2시간대가 되는 교통혁명이 일어나, 기업들의 경제여건도 개선은 물론 거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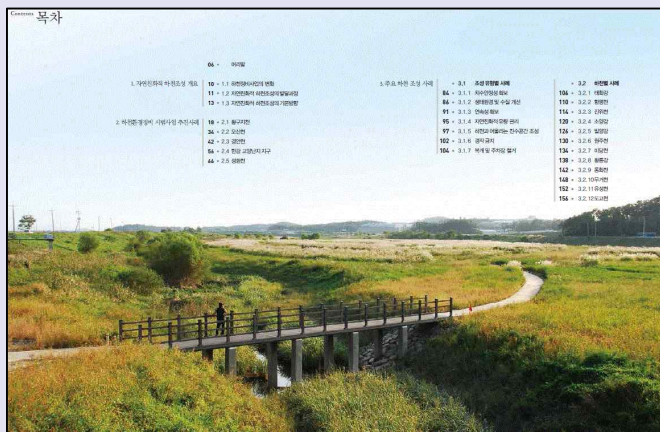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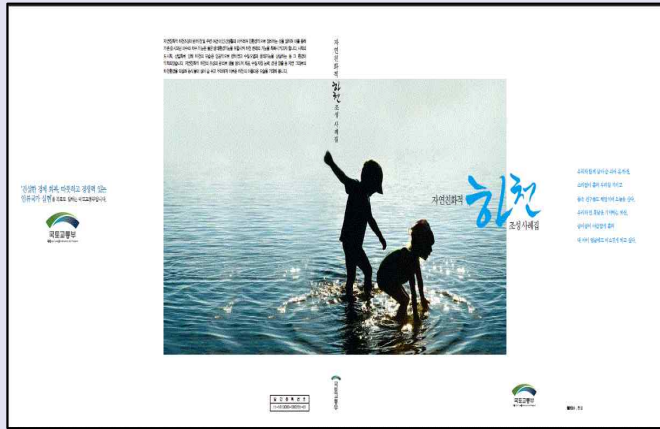
■ 자료 : 도 성장동력과 조선해양담당 (055)211-2733



하천,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대

▶ 국토부,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사례집」 발간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하천정비 사례를 확산·보급하고 바람직한 하천 정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사례집」을 발간한다.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사업이란, 하천의 치수와 이수 기능을 고려함과 동시에 하천 환경의 보전, 재생 및 복원을 고려한 하천사업으로, 국토부는 1998년도 오산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다.

사례집은 그동안 추진한 하천정비 사례 중에서 황구지천 등 17건의 하천정비 우수 사례와 하천 유량 관리 방안 등 7건의 유형별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 전후 및 공사중의 사진을 대비하거나, 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사업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례집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3월 31일부터 홈페이지(www.molit.go.kr)에 게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등에 배포하여 하천정비 업무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중요한 여가 및 생활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하천을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공존하는 조화로운 공간으로 가꾸고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우수사례>

구분	사업구간	사업기간
황구지천	경기도 수원시 ~ 화성시, 16.3km	'03 ~ '12
오산천	경기도 오산시 ~ 평택시, 15.3km	'98 ~ '06
경안천	경기도 광주시 오포면 ~ 퇴촌면, 22.5km	'01 ~ '04
한강 고양 난지 지구	경기도 고양시 일원, 3.8km	'03 ~ '06
성환천	충남 천안시 성환읍 일원, 4.7km	'01 ~ '04

<일반사업 우수사례>

구분	사업구간	사업기간
태화강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 태화동, 4.0km	'02 ~ '07
함평천	전남 함평군 함평읍 일원, 3.1km	'06 ~ '10
진위천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 팽성읍, 20.1km	'05 ~ '13
소양강	강원도 춘천시 일원, 10.2km	'07 ~ '14
밀양강	경남 밀양시 일원, 11.2km	'10 ~ '13
원주천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 태장동, 6.3km	'10 ~ '13
미당천	충북 제천시 신동 ~ 미당리	'10 ~ '14
황룡강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동 ~ 임곡동, 1.6km	'09 ~ '12
동화천	대구광역시 공산동 ~ 지묘동, 1.7km	'10 ~ '13
무거천	울산광역시 남구 일원, 1.2km	'10 ~ '12
유성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 장대동, 2.6km	'08 ~ '12
도고천	충남 아산시 도고면 일원, 4.4km	'08 ~ '13

■ 자료 :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044)201-3613

올해 도로관리 화두는 '안전', 도로관리 예산의 76% 투입

▶ 낙석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병목지점 개선 등에 7,639억 원 투입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로관리의 목표를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조성”으로 정하고 예산 1조원을 투입한다. 특히, 낙석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교량 및 터널 보수·관리, 병목지점 개선, 졸음쉼터와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 분야에 예산의 76%인 7,639억 원을 투입한다.

최근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폭설,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이용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다.

첫째, 안전시설물 설치, 졸음쉼터 확충 등을 통해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먼저, 차량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299억 원을 투입하여 287km구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255억 원을 투입하여 63km 구간에 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며,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186억 원을 투입하여 졸음쉼터 25개소(고속도로 20, 국도 5개소)를 금년중 추가 설치하고, '17년까지 22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폭설, 집중호우 등으로 포트홀 등 포장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985억 원을 투입하여 당초 계획했던 295개 구간 500km 포장보수 외에 해빙기 도로포장 특별점검(3.3~3.12)을 실시하여 조기에 포장보수를 실시하고, 포장파손에 근본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성능이 우수한 장수명 도로포장 공법을 도입(연구용역, 120백만원)할 예정이며, 1,200억 원을 투입하여 국도변 낙석산사태 발생 위험지구 517개소에 비탈면보강, 낙석방지책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산림청과 함께 산사태 발생이 예상되는 127개 지점(고속도로 64, 국도 63개소)에 대한 현장 정밀조사 및 보강공사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노후된 교량 및 터널의 안전을 위하여 1,369억 원을 투입하여 약200개소 시설에 대한 개축, 성능개선, 내진보강 등을 실시하고, 교량관리의 과학화를 위한 교량통합관리시스템을 시범 도입('14.4)할 예정이며,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64개 위험지점(350억원), 취약지 통과 및 급커브 등 도로구조가 취약한 83개 지점(739억원), 도로폭원이 부족하고 교통량이 많은 62km구간에 대한 정비(65억원)를 추진하고, 교차로 개선, 오르막차로설치 등 단기간, 소규모 투입을 통해 교통흐름 개선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병목지점 180개소에 대한 개선사업(1,470억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둘째,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도로점용 정보마당 통합구축 등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통한 편리한 도로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먼저, 포장파손, 낙석 등 도로이용시 불편하고 위험한 사항에 대하여 스마트 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기동보수팀이 24시간내 해결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도로이용불편 척척 해결서비스”를 3월말부터 시행하고,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 운영중인 “도로점용 정보마당” 시스템을 지자체 시스템과 연계하여 통합구축함으로써 지역별 도로점용현황 등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굴착공사시행자에게 장기계획(5년단위)를 제출토록 하는 등 도로굴착을 최소화 하겠으며, 도로명 주소체계 도입에 따라 도로안내 표지판을 지명에서 도로명 중심으로 전환하고, 도로명 상단 방향정보 글자크기, 방위표기, 도형식 도로명표지 디자인 등을 개선하여 시인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셋째, 도로변 유희부지 활용, 고속도로 오아시스 휴게소 조성 등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도로환경을 구축에 노력할 계획이다.

먼저, 폐도, 줄음쉼터 등 도로변 유희부지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특산물 판매소(‘14년 시범사업 2개소) 및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알뜰주유소 기름값을 야간 셀프주유기 확대설치, 유류공동구매 등을 통해 리터당 약 30원 인하하고, 노후CCTV 교체하는 등 고속도로 휴게소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그리고, 47억원을 투입하여 전망데크, 쉼터 등을 설치하여 경관도로를 조성(‘15년까지 8개소)하고, 62억원을 투입하여 생태통로 설치(‘17년까지 17개소 신설, 108개소 정비)를 통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루어지는 도로환경을 조성하며, 단순 휴식 및 생리욕구 해소를 위해 활용되던 고속도로 휴게소에 배후접근로 및 환승

정류장 등을 설치하여 물류창고 설치를 통한 물류처리기능, 교통수단간 환승기능,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기능을 부여하는 등 휴게소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도로간 연계성 강화 등 효율적·경제적 도로조성을 노력할 계획이다.

먼저, 고속도로 혼잡구간 교통의 우회 분산을 위해 연계도로(국도 등)와의 접속구간 개선 등을 통해 연결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고속도로 혼잡시 우회도로와의 연결로 부족하고, 우회경로 파악 및 소요시간 예측이 어려워 우회도로 이용이 어려웠으나, 고속도로와 국도간 연결로 개선 등을 통해 더욱 쉽게 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수도권 연계도로망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계도로망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7개의 도로유지관리시스템*에 최신 IT기술을 접목하는 등 고도화하고 통합관리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도로정보를 한눈에 파악이 가능케하여 도로관리자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포장관리(PMS), 비탈면관리(CSMS), 도로점용(ROAS), 도로표지, 교통량조사, 도로제설관리, 교량관리(BMS) 시스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도로정비, 서비스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발굴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첨단도로환경과
(044)201-3909

그린리모델링 공공건축물이 앞장선다

▶ 2014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대상 선정...11곳에 20억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청 제2별관 등 11개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에너지 성능이 낮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모범사례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13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행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공공건축물에서 선도적인 그린리모델링 성공모델을 창출하여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민간부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다.

올해 시범사업은 시공지원사업 부문에 경기도청 제2별관 등 4개소와 사업기획지원사업 부문에 인천의료원 등 7개소를 선정하여 총 2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시공지원사업은 일반리모델링으로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공사비를 지원하며, 사업기획지원사업은 리모델링을 구상 중인 공공건축물의 녹색화를 유도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기획을 지원한다.



<사업기획지원사업 (거창여고)>

[시범사업 대상 건축물]

시공지원사업 (4개, 총 13억원)	경기도청 제2별관, 수자원공사 물사랑 어린이집(대전), 문경시청사, 서울세관 2동 청사
사업기획지원사업 (7개, 총 7억원)	인천의료원, 정읍시 연지청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수동(서울), 한국도로공사 군위지사, 목포대학교 사회과학관, 거창여고, 춘천교도소

시범사업 시행자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구조-에너지진단,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사후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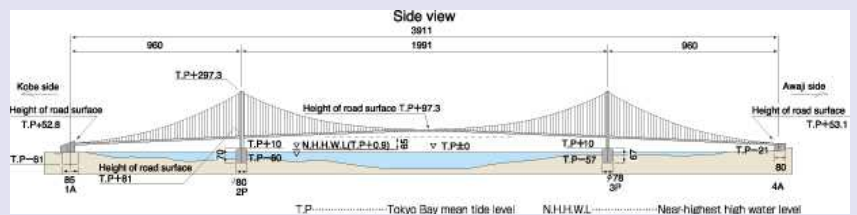
시범사업 대상은 지난 2월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기존건축물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총 52건이 접수되었으며, 시범사업 선정위원회의 1차 및 2차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본 시범사업을 통해 그동안 신축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이 어려운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의 모범 사례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68

日本 明石海峡大橋(아카시 카이교 오오하시)

아카시 카이교 오오하시(명석해협대교)의 교장은 3,911m, 교각과 교각간의 중간 지간장은 1,991m로 세계 제일 현수교의 숨겨진 비밀을 알아본다.



1. 일반개요

아카시 해협은 오사카만과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협의 폭은 약 4km, 최대 깊이 약 110m, 최대 간만은 4.5m/sec (약 10노트)이다. 이처럼 아카시 해협 대교는 어려운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서 건설되었다.

본 교량은 내풍속도 80m/sec, 그리고 1995년 발생한 고베지진 규모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도록 내진 설계되었고 교각 기초는 60m의 수심과 4.5m/sec의 빠른 조류는 물론, 12만톤의 수직응력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었다.

<교량건설 연혁>

- 1955. 5.11 : 여객선 2척이 안개로 충돌하여 168명 사망사고 발생
- 1959년 : 건설성에서 본 지역의 고속도로 건설 연구를 시작함
- 1970년 : 본州四国連絡橋公团설립
- 1973년 : 건설성에서 건설계획 승인
- 1985년 : 일본정부사업으로 아카시대교 건설기로 결정
- 1986. 4.26 : 기공식. 건설현장의 지질학적 조사 실시
- 1987년 : 타워기초 조사실시
- 1988. 5. 1 : 현장 공사 착수
- 1998. 4. 5 : 공사준공및 공용사용 개시
- 2005. 10 : 유지관리회사 설립(本州四国連絡高速道路 株式會社)



교각 기초 운반중



전체 모델 풍동 실험실 테스트

<교량건설 기본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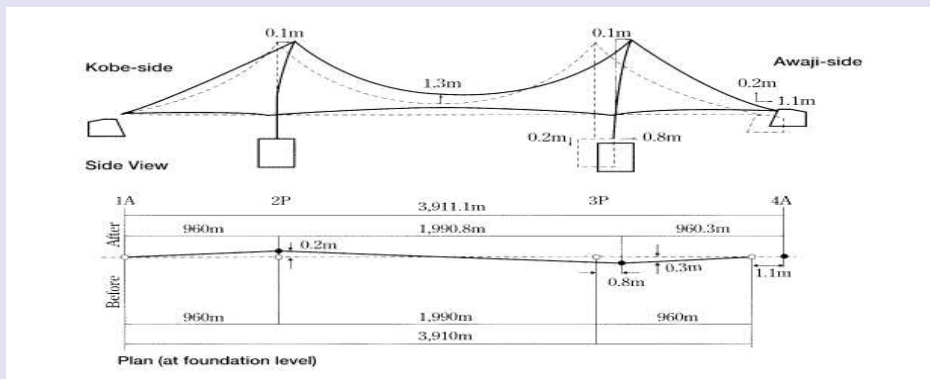
자연 조건	해협 폭	약 4km	
	최대 깊이	약 110m	
	최대 조력 현재 기초에서	약 9노트 (4.5m/sec)	
	기본 풍속	46m/sec	
설계 조건	구조 유형	3경간 2хин지 보강 트러스 현수교	
	총 길이	3,911m(960m + 1,991m + 960m)	
	기본 풍속 디자인	거더 : 60m/s 타워 : 67m/s	
	지진 대책	"아카시 해협 대교 내진 설계 기준"에 따라	
	중심 위치의 높이	해수면에서 97m	
	교량하부 여유고	해수면에서 65m	
상부의 총 무게 193,200ton	탑 : 46,200t	거더 : 89,300t	케이블 : 57,700t

2. 숨겨진 비밀?

<중앙 경간장의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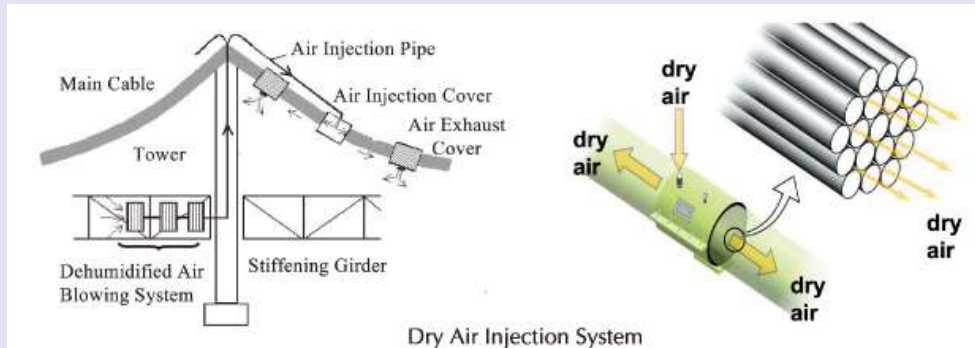
1995. 1.17일 리히터규모 진도 7.2의 대지진이 아카시대교위에서 발생되었다.(우리는 고베 대지진이라고 함) 그 당시, 아카시 해협 대교는 두 타워가 완성되었고, 다리의 주요 케이블이 건설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진 후, 포괄적인 조사결과 공사 중에 있던 교각위치가 변경되었고 공사중인 교각은 베어링 접지로 인한 이동이라고 조사되어 지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아직 공사하지 않은 스팬의 길이를 변경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몇몇 분석에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고려한 후, 그 영향이 최소라고 증명되어 공사를 계속 진행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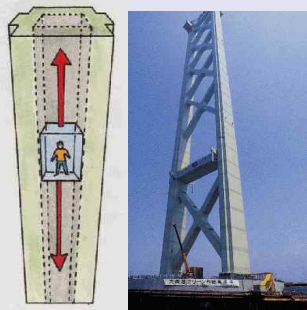


<200년 내구성 확보를 위한 주케이블 보호시스템 개발>

검사, 유지 보수 및 운영에 있어서는 200년 내구성 확보라는 적절한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이 연구·개발 되어 왔다. 그 중 하나가 "건조 공기 분사 시스템"이다. "건조 공기 분사 시스템"은 부식으로부터 메인 케이블을 보호하는 것으로 메인 케이블에 건조 공기를 주입하고 케이블 내부의 습도를 줄여 유지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주탑의 중앙에는 무엇이 있나>



주탑은 철판을 조립하여 건설되었고 그 중앙은 비어있다. 탑은 3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블록을 쌓은 후에 조립하는 방법으로 건설되었다. 중앙에는 엘리베이터와 동력·조명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다

<주형부터 해면까지의 높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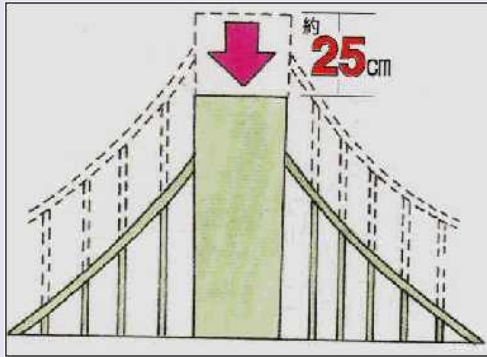


주형은 해면으로 부터 65m 높이에 가설되었다. 명석해협은 폭 1,500m의 국제항로가 설정되어있고 이 지역은 마스트가 높은 선박이 많다. 예를 들면 탱크선인 히노이시선이나 호화여객선 퀸 메리호등 그 높이가 63m 정도 된다. 이에 항로폭과 항행하는 선박의 높이를 고려한 결과 최소 높이 65m의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교형은 그 위에 상판이 가설되기 때문에 차가 실제 달리는 높이는 중앙의 가장 높은 곳은 약 97m 정도의 높이가 된다.

<주탑은 자중에 의거 축소된다>

지우개를 위에서 누르면 축소되는 것과 같이 철재도 그런 현상이 생긴다. 이처럼 현수교의 탑은 동경타워와 같은 일반 탑과 달리 케이블로부터 압력이 가해져 주탑이 축소되는 현상이 생긴다. 명석해협대교의 주탑 또한 12만톤의 힘이 케이블로부터 전해지기 때문에 주탑은 25cm정도 축소되어진다.

주탑에는 케이블과 보강형 약 12만톤의 중량이 실린다. 이것은 호화여객선 퀴에리자베스 2 세호 2척이 적재된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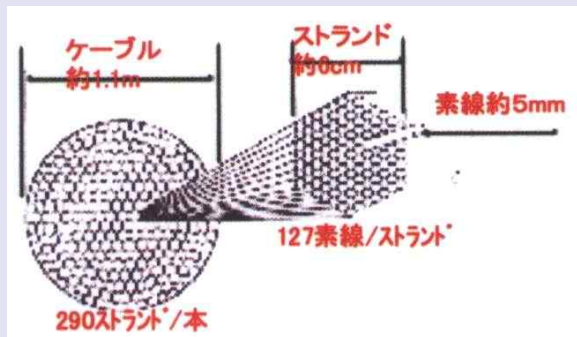


<주케이블의 총연장은 지구의 7바퀴 반>

현수교의 생명인 케이블은 ‘소선’이라 부르는 가는 선을 여러 가닥 묶은 것이다.

명석해협대교의 케이블에 사용된 소선은 직경 5.23mm로 주 케이블 1본에는 36,830본의 소선이 사용되었다. 이에 좌우 양측의 주케이블 2본의 총 소선 길이는 약 30만km에 달하며 지구를 7 바퀴 반에 해당하는 거리로 빛이 1초간에 진행한 거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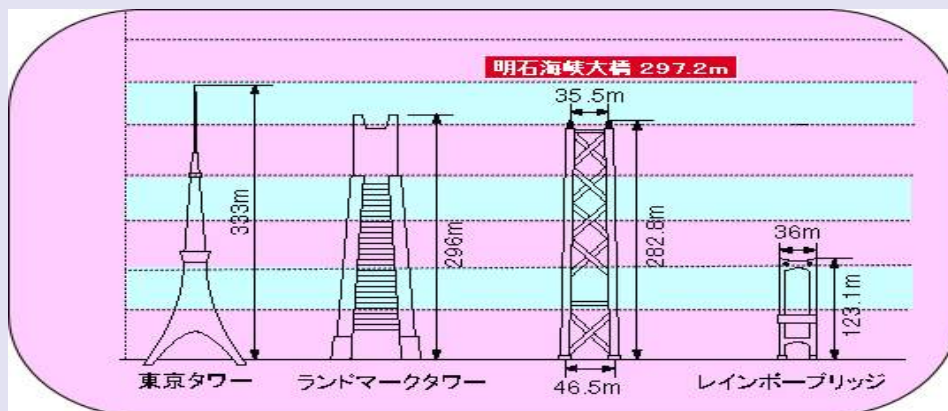
또한 1본의 케이블 직경은 약 1.1m에 달하며 이것은 세계최대이다.



<주탑의 높이는 100층의 빌딩높이와 같다>

명석해협대교의 2개의 주탑 높이는 약 297m, 동경타워(333m)보다는 낮지만 요코하마의 랜드마크 타워(296m)와 거의 동일하며, 이는 102층 빌딩 높이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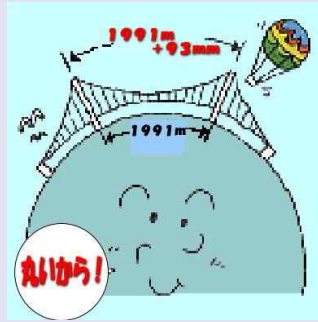
이에 반해 탑기둥의 바닥면적은 14.8m×6m=88.8㎡로 우리나라 32평형 아파트 전용면적과 비슷한 좁은 면적이다.



동경타워 랜드마크타워 명석해협대교 레인보우브리ջ

<교량의 길이는 주탑의 상부와 하부가 다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명석해협대교의 2본 주탑 높이는 약 297m이며, 이 주탑은 약 2km의 간격으로 건설되었다. 이처럼 긴 주탑간의 거리로 인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주탑의 정상에서 간격은 해면에서의 간격보다 93mm 더 길게 건설 되었다.



<주탑의 기초는 왜 둥그나?>

지진은 어느 방향에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책은 원통형의 기초가 가장 합리적이다. 또 명석해협의 조류가 최대 초속 4.5m 이며 만조위가 정지한 시간도 길다. 이에 둥근 기초는 조류에 의한 영향이 적고 주탑 기초의 강철제 케이슨을 설치하는 작업 또한 용이하다.

이 주탑을 명석해협에 설치하기 위해 먼저 수심 60m의 해저에 ‘거대한 집게를 단 그레브선’이라는 선박으로 굴착하여 지반을 평탄하게 하고 거기에 조선소에서 만든 강철제 케이슨을 운반하여 가라앉혀 수중에서도 흩어지지 않는 특수한 콘크리트를 흘려 넣어서 만들었다



3. 맺음말

일본 건설성에서 안개로 인한 선박 충돌로 168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 이후 4년간에 걸쳐 고속도로 건설을 연구하였고, 또 본 교량 건설을 위한 기관 설립은 그 이후 10여년, 교량 건설이 결정되기 까지 또 10여년, 그 후 공사기간만 10여년 등 세계 최고의 교량 건설을 위하여 총 40년 이상을 소요 하였다.

우리나라가 지금의 모습으로 건설분야의 성장을 이루기까지 ‘빨리 빨리’ 문화의 장점도 있었지만 최근 일어나는 건설분야의 인적 재난을 보면 정작 중요한 시설의 내구성이나 사용성 등을 등한시 한 결과가 아닌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이제는 우리 건설기술인들도 세계가 기억할 만한 구조물과 최고의 기술력을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자료 : 지방건설기술심의회 김 대 유
(주)덕성 부회장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입법예고일 : 2014. 3. 21.(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 예고기간 : 2014. 3. 21. ~ 2014. 5. 1.

□ 개정이유

민간부문의 주택건설 공급 및 거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도권 민간택지 내 전매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주택건설 환경 등의 변화 상황을 반영하는 동시에 주택수요 및 사업특성 등 다양한 건설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대상 규모를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사업계획승인대상 기본 규모를 30세대까지 완화하고, 블록형단독주택지에 건설하는 주택, 한옥, 단지형 도시형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택 등의 경우에는 50세대까지 완화가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15조제1항)
- 나.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비투기과열지구)의 전매행위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안 별표 2의2)

□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4년 5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0, fax 044-201-5684)

■ 자료 :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입법예고일 : 2014. 3. 2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317호)
- 예고기간 : 2014. 3. 24. ~ 2014. 5. 7.

□ 개정이유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이 개정('14.7.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밖에 법 규정을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시 용적률 완화 대상시설, 완화범위, 기부채납 기준·절차 등 규정(안 제85조제10항부터 제12항 신설)

- 1)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활공간 내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노인복지관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하되, 용적률 완화범위를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기부채납시설 면적의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채납 기준 및 절차 등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법을 준용하는 등 세부규정을 마련함.

나.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3, FAX 044)201-5569,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자료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 입법예고일 : 2014. 3. 31.(국토교통부 공고)
- 예고기간 : 2014. 3. 31. ~ 2014. 5. 13.
- 개정이유

산업단지내 용도지역 완화를 위해 복합용지를 도입하고,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상공회의소에 사업시행자 자격을 부여하며, 민간 사업시행자에게도 대항개발을 허용하는 한편, 재생사업 촉진을 위해 총괄사업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13.9.25)」의 일환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4.1.14.공포, 법률 제12253호)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가. 산업시설용지내에 복합용지 비율은 산업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50 까지 허용(안 제7조제4항)
- 나. 준산업단지 지정 기준 중 공장 수를 현행 5개에서 2개로 완화(안 제10조의3제1항)
- 다. 일정기간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토지소유자의 해제요청 시 산업단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 라. 중소기업협동조합·상공회의소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속 조합원(회원)에게 분양임대 등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안 제19조제1항)
- 마. 대항개발이 가능한 면적을 해당 산업단지 면적의 1/2 이내로 하고, 실시설계·부지조성 등 대항개발의 범위와 절차를 규정 (안 제20조)
- 바. 공공 사업시행자의 용지 미분양에 따른 위험을 해소하고 개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성원가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이윤율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0조)
- 사.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의 수의공급 계약 대상을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시·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도 가능하도록 확대(안 제42조의3제4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 규정(안 제6조의3)
- 나. 입주기업 종사자에 대한 산단내 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따르도록 규정(안 제27조의2)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677, 팩스 : 044-201-5564

■ 자료 : 국토교통부

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입법예고일 : 2014. 3. 28.(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375호,-376호)

□ 예고기간 : 2014. 3. 28. ~ 2014. 5. 7.

□ 개정이유

변화된 경제사회 여건을 반영하고 도로의 효율적인 건설·관리를 위하여 도로법이 전부개정('14.1.14 공포, 7.1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도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후 5년이 경과되어 기본설계가 착수되는등 장기 지연 사업으로서 수요예측 재조사 결과 경제성이 없는사업 중 정책적으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재평가 대상 사업으로 함(안 제7조)

나. 도로구역 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 물류시설, 환승센터,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정함(안 제26조)

다.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 채취 등도로구조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3조)

라. 자동차전용도로는 5km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안 제44조)

마.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0조·제51조)

바. 일반경쟁에 의해 점용자를 선정할 수 있는 곳으로 도심지내 교량(고가도로) 하부 등 점용 수요가 많은 곳으로 함(안 제55조)

사. 신용카드 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안 제70조)

아. 접도구역에 있는 장애물 제거 등 조치명령 미이행, 불법점용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를 정함(안 제91조 및 별표5)

<도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가.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도로의 노선명, 지정구간범위, 지정사유, 열람장소 및 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함(안 제21조)

나. 도로구역의 연결허가를 먼저 받은 자와 새롭게 연결허가를 받아 진출입로를 공동사용 하고자 하는 자 간의 비용 분담은 공동사용구간 별 설치비용 합계를 해당 연결허가를 받은 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함(안 제22조)

다.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노선 중 주요 산업단지 또는 물류단지 내의 도로, 공항·항만과 교통물류거점을 연결하는 도로 등을 주요노선으로 선정하여 해당 행정청에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노선 선정 절차를 정함(안 제40조)

□ 의견제출

이 「도로법 시행령」 및 「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2014년 5월 7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6동)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5588, fax 044-201-3879)

■ 자료 : 국토교통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입법예고일 : 2014. 3. 25.(국토교통부 공고)
- 예고기간 : 2014. 3. 25. ~ 2014. 4. 14.

□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2013.5.22, 시행 2014.5.23)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진단기관이 부실하게 수행한 점검·진단 실적을 PQ평가에 누락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등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 및 용어 수정

-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 인용 조문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수정
- 나. 업체 실적평가자료 및 기술개발 실적자료의 신뢰성 확보 등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부실 또는 시정 처분을 받은 업체 실적이 평가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세부평가방법을 개선

* 현행, 최근 1년간 용역에 대하여 감점토록 하는 규정을,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간으로 변경

- PQ평가지 업체에서 제출하는 특허 또는 건설신기술 실적자료를 관련법령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한정하여 신뢰성을 확보

* 특허 :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건설신기술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의견제출

이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로 2014년 4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587, 3588, Fax 044-201-3573

■ 자료 : 국토교통부

커튼월 층간 화재확산방지를 위한 경량무기발포 세라믹보드의 백패널 및 프레임커버 적용 공법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한국세라믹기술원
	현대산업개발(주)
	주식회사지메텍
	(주)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28호
- 기술분류 : 건축/마감/기타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폐유리분말과 플라이애시 등의 순환자원과 발포제를 혼합, 고온 발포 소성하여 제조한 하이브리드 경량무기발포 세라믹 보드를 커튼월 시스템 Spandrel 부위의 Back Panel 및 프레임 커버에 적용하여 커튼월 내화성능 및 내결로성을 향상시킨 기술이다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폐유리분말과 플라이애시 등의 무기계 혼화 재료와 발포제를 혼합하여 고온에서 발포하여 성형한 이종의 보드를 복합한 경량무기발포 세라믹보드를 커튼월 시스템 층간에 걸쳐 있는 Spandrel 부위의 Back Panel 대체 및 프레임 커버를 설치한 화재확산방지 공법

흙막이벽체 지지를 위한 원형 강관 버팀보 체결공법(SP-STRUT 공법)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한스
	(주)도화엔지니어링
	(주)건화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26호
- 기술분류 : 토목/토질및기초/흙, 물막이공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토목(철도, 지하철, 지하차도), 플랜트(상하수도, 환경), 건축 건설공사에서 기존 H형강 버팀보에 비해 단면의 좌굴 및 비틀림 성능이 우수한 원형의 강관 버팀보를 시공함에 있어서 띠장 연결재(HWJ-II), 책 연결재(HWJ-II), 강관이음재(HSJ-II) 및 강관유밴드(HUB-IIa)를 적용하여 가시설 전체 구조계를 변경함으로써, 수평·수직·횡 보강재(bracing)가 불필요하게 되는 흙막이벽체 지지 공법이다.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원형 강관 버팀보를 시공함에 있어서 띠장 연결재(HWJ-II), 책 연결재(HWJ-II), 강관이음재(HSJ-II) 및 강관유밴드(HUB-IIa)를 적용한 흙막이벽체 지지 공법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https://www.kaia.re.kr/>)건설신기술정보마당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심의 현황

2014년 제4회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결과

- 건 명 : 실시설계 적정성 3건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안) 5건
- 심의일자 : 2014. 3. 19.(화)

의안번호	요청사항	사업명	사업개요	발주청	심의결과
2014-04-01	실시설계 (적정성)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	· 위치 :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일원 · 사업내용 : 택지개발사업 A=248,750㎡ · 사업비 : 440억원 · 사업기간 : 2009 ~ 2015년(5년)	의령군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조건부
2014-04-02	실시설계 (적정성)	구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 위치 :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일원 · 사업내용 : 하천환경정비 2.6km · 사업비 : 160억원 · 사업기간 : 2014 ~ 2017년(3년)	함양군 (안전관리과)	조건부
2014-04-03	실시설계 (적정성)	거창산성 진입도로 개설공사	· 위치 : 거창읍 상림리~대평리 일원 · 사업내용 : 도로개설 L=4.5km, B=10~20.0m · 사업비 : 395억원 · 사업기간 : 2014 ~ 2019년(5년)	거창군 (도시건축과)	조건부

의안번호	안건명	발주청	심의결과
2014-04-04	2020 의령군 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의령군 (건설도시과)	조건부
2014-04-05	2030년 통영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통영시 (도시과)	조건부
2014-04-06	대목 자연재해위험지구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합천군 (건설방재과)	조건부
2014-04-07	김해시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김해시 (정수과)	조건부
2014-04-08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창원시 (정보통신담당관)	조건부

2014년 제5회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계획

- 건 명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안) 등 8건
- 심의일자 : 2014. 4. 23.(수)

의안번호	안건명	발주청
2014-05-01	양산시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양산시 (산림공원과)
2014-05-02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진주시 (하천관리과)
2014-05-03	김해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김해시 (수도과)
2014-05-04	진주시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진주시 (정수과)

의안번호	안건명	발주청
2014-05-05	정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	통영시 (치수방재과)
2014-05-06	사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	거제시 (상하수도과)
2014-05-07	진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외 2개소 통합전면 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SOQ)	진주시 (하수과)
2014-05-08	사천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SOQ)	사천시 (전략사업담당관)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담당
(055)211-4625

계약심사 현황

(단위:백만원)

기간	분야	건수	심사현황			비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2014년 3월	계	72	82,998	75,952	7,046	8.49%	
	공사	토목	23	53,229	48,326	4,903	9.21%
		건축	7	14,139	12,970	1,169	8.26%
		기타	10	3,854	3,550	304	7.91%
	용역	16	8,895	8,305	590	6.63%	
	물품	16	2,881	2,801	80	2.79%	

■ 자료 : 도 회계과 계약심사담당
(055)211-3548

기술인 나눔 정보

2014년 국가기술자자격 검정시행일정

회별	회별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 기 시 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결정 (방문 제출) ·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 (인 터 넷)	실기(면 접) 시 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기술사	제103회	4.4~4.10	5.11	6.27	6.30~7.3	7.26~8.8	8.22
	제104회	6.27~7.3	8.3	9.19	9.22~9.25	10.18~10.30	11.14
기사 (산업기사)	제2회	4.18~4.24	5.25	6.5	6.9~6.12	7.5~7.18	8.22
	제3회	7.25~7.31	8.17	8.29	9.1~9.4	10.4~10.17	11.14
	제4회	8.22~8.28	9.20	10.2	10.6~10.10 (10.9 제외)	11.1~11.14	12.12

■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요령」 교육

- 교육일시 : 2014. 4. 11.(금) 14:00 ~ 17:00
- 장 소 : 한국건설감리협회 6층 교육장
- 참석대상 : 감리원 및 발주처 담당자(사전 교육신청:선착순)
- 주 최 : 한국건설감리협회
- 교육내용
 - 감리보고서제도 개선 배경 및 그 동안의 추진경위 설명
 - 감리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SPRS) 운영 시연
 - 실태점검결과 등 실제 감리보고서 작성·운영사례 설명
 - 발주처 담당자의 컴팩트디스크 감리보고서 내용 확인방법 등

■ 자료 : 한국건설감리협회
(02)3460-8625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 안내

- 관련 법 :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 입력대상 용역 : 설계, 감리, CM 등 공공분야의 건설기술용역
- 입력시기 : 용역의 계약체결 후, 설계 변경 후, 준공 후 10일 이내 기술자 변경시 즉시 입력
- 시스템 사용자 :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사업관리담당자
용역사 대표자 및 용역책임자(원도급·하도급)
- 시스템 접속 URL : <http://211.53.241.200>
- 참고 :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되는 '14. 5.23. 이후는 본 시스템을 통하여만 건설기술 용역에 대한 실적 관리 및 확인 가능함.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담당
(055)211-4626

위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www.gsnd.net>(실국홈페이지) 및
경상남도 건설정보 <http://gncl.gsnd.net>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재 신청 건설관련 자료 및 원고도 받습니다.

TEL : (055)211-4623~6

FAX : (055)211-4619

e-mail : babyhye@korea.kr

이 자료는 업무 참고용입니다.